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자 료</h1> <p style="color: red;">12월 18일(수) 행사시작(12:00) 이후 보도</p>	
배 포 일	2019. 12. 18. / (총 8매)	담당부서	아동권리과
과 장	변 호 순	전 화	044-202-3430
담 당 자	권 고 운		044-202-3446

보호종료아동의 물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하다!

-지난 4월에 이어 『바람개비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연말 오찬 간담회』 개최(12.18)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12월 18일(수) 12시 잠실 롯데호텔 월드(서울 송파구)에서 바람개비 서포터즈*로 활동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들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보호 중인 아동들에게 자립 성공 비결(노하우)을 제공하고 심리·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자립 지도자(멘토)로 현재 약 80여 명 활동 중

○ 이번 만남은 지난 4월 자립수당* 제도 시행을 계기로 열렸던 ‘보호종료아동 현장간담회’에서 “건의 사항**은 연말에 다시 만나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직접 말씀드리겠다”는 박능후 장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급

** 1차 간담회('19.4.24.) 당시 자립수당 지급기간 연장, 공공 주거지원 확대,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이 건의됨

□ 이날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였다.

- 먼저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예산이 반영되었다.

* '18년 98억5800만 원 → '19년 218억2300만 원

- 아울러 지급 대상도 아동일시보호시설·보호치료시설까지 포함하여 내년부터 2,900명('19년 4,980명 → '20년 7,820명)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받게 되었다.

- 공공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* 물량을 240호에서 360호로 확대하고, 시행 지역도 7개에서 10개**로 확대한다.

* LH 주거지원(월 임대료 지원)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

** 서울, 부산, 인천(신규), 광주, 대전, 충북(신규)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남(신규)

-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LH 매입임대·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초기(6년)에는 소득·자산 기준을 삭제해 자립여건을 대폭 개선했으며, 최장 20년*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 ('19.7월)

* 입주 6년 이후 소득·자산 기준 등 적용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

- 이와 함께, 자립지원 정보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기존 리플릿 위주 정보제공 방법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, 사회관계망(SMS) 등으로 소통채널을 다양화한다.('20년 상반기)

- 또한, 다양한 자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(어플리케이션)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자립정보 책자도 제공하여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백과사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('20년 상반기)

- 박능후 장관은 “지난 4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도화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”고 언급했다.
- 아울러 “정부는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.”고 말했다.

- < 붙임 >
1. 「2019년 바람개비서포터즈 연말 오찬 간담회」 개요
 2. 4월 간담회 이후 개선사항
 3.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
 4. 2020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개요

붙임 1 2019년 바람개비서포터즈 연말 오찬 간담회 개요

□ 개요

- (목적) '19.4월 보호종료아동 간담회* 후속조치로 자립지원 제도 개선사항 및 향후 계획 관련 바람개비서포터즈 연말 간담회 진행
 - * '19년 4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을 계기로, 혜심원(아동양육시설)을 방문하여 보호종료아동 간담회 진행
- (일시/장소) '19.12.18(수) 12:00~13:20, 잠실 롯데호텔 3층 Pearl room
 - *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, 롯데호텔월드
- (참석) 보건복지부, 아동권리보장원,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15명
 - (보건복지부) 장관, 인구정책실장, 인구아동정책관
 - (아동권리보장원) 아동자립국장
 - (바람개비서포터즈*) 4월 간담회 참석 보호종료아동 등
 - * 자립 선배로서 보호 중인 아동들에게 자립 성공 노하우 제공 등 멘토 역할 담당
- (주요일정) 오찬과 함께 4월 간담회 이후 자립지원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, 바람개비서포터즈 의견 청취 등

□ 세부 진행 계획

시 간 (80분)	내 용	비 고	촬영
12:00 ~ 12:03(3')	참석자 소개	사회자	○
12:03 ~ 12:10(7')	인사 말씀	장관	○
12:10 ~ 12:17(7')	자립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	인구아동정책관	X
12:17 ~ 13:00(43')	오찬 및 간담회	참석자	X
13:00 ~ 13:20(20')	다과 및 폐회	참석자	X

붙임 2 4월 간담회 이후 개선사항

- (자립수당)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 지급기간 연장 필요
 - 자립수당 지급기간을 보호종료 3년 이내로 확대하고, 아동일시 보호시설·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('20)

- (주거지원)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 주거지원 확대 필요
 - ① LH 주거지원*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'주거지원통합 서비스' 대상 확대('19, 240명 → '20, 360명)
 - * 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(매월 15만원 상당 실비 지원)
 - ② 보호종료아동 대상 공공지원 주택* 공급 물량 대폭 확대('20, 국토부)
 - * ('19) 약 1,000호 → ('20) 약 2,000호 → ('22) 약 6,000호
 - ** ('22) 6,000호 : 전세임대 4.5천호 + 매입임대 0.9천호 + 건설 0.6천호
 - ③ LH 매입·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성 대폭 향상('19, 국토부)
 - 소득 기준 삭제, 우선순위 부여, 지원기간 확대(최대 6년→20년) 등
 - ④ LH 주택 물색 도우미를 배치하여 부동산 물색부터 계약 과정까지 밀착 지원('20, 국토부)

- (기초생활보장)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등 자격 기준 완화 필요
 -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,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, 자립에 충추적 역할 담당
 - *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은 보호종료 연도 기준 '18년(1년차) 45% → '14년(5년차) 13.3%로 보호종료 된 지 오래될수록 낮게 나타남

<부양의무자>

- ①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은 부모의 소득·재산과 상관없이 지원('19.1월~,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)
- ② 자녀가 만18세~만34세인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* 미만이면 부모의 수급권에 영향을 주지 않음(최대 7년)

*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와 258만 원 중 더 높은값

<근로소득공제>

- ① 만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은 근로소득 특별공제 확대*('19.1월~)
* (40만원+나머지 금액 30%) → (50만 원+나머지 금액 30%)
- ② 만2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 30% 신규 확대('20)

□ (정보제공) 지원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제공 필요

- ① 기존 자립정보북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여 배포('19년 말)
- ② 고용부 온라인 청년센터*를 활용하여 중앙부처·지자체 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('20.1월)
* 온라인청년센터 : www.youthcenter.go.kr
- ③ 다양한 자립 지원 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('20.상반기)
- ④ 카카오톡 '플러스 친구'를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('20.상반기)
- ⑤ 신규 자립지원 정책 도입시 개별 SMS, 이메일 안내('20.1월~)

붙임 3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

□ 필요성

-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
 - *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(31.1%),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(41.1%) ('16년,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)
-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

□ 지원 내용

- (사업개요)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
- (지원대상) 아동복지시설*,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(7,820명)
 - *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
 - 단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
- (법적근거)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(시행일 '20.1.1)
- (지원내용)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
 - (지급금액) 매월 20일,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
 - (지급기간) '19.4월~12월(시범사업), '20.1월~계속(본사업)
 - (소요예산) '20년 정부안 기준 국비 218억2300만 원(서울 50, 지방80)

□ 기대효과

-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

붙임 4 2020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개요

□ 추진배경

- 매입·전세임대주택, 자립지원시설 등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주거 불안 경험*

* '18년 보호 종료 아동(2.6천명) 중 33.4%만이 정부 지원을 통한 주거 해결

- 주거 위주 단편적 지원으로 체계적 자립 지원 연계는 부족
 - 기술·경험,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·주거비 등 조달과 구직 활동을 병행하여 자립 지연 요인*으로 작용

* 청년층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8.4개월인 반면, 보호종료 아동은 약 25.6개월(*16) 소요

□ 사업내용

- (사업개요) 보호종료아동에게 임대료 지원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부담 완화 및 정서적 지지체계 지원
- (지원대상)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LH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
- (지원지역) 10개 시도(서울, 부산, 인천, 광주, 대전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남)
- (법적근거)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
- (지원내용) 주거지원(월 임대료 지원)과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
 - (주거지원) LH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매월 최대 15만원 실비 지원
 - (사례관리)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

*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 원 상당 사례관리비 지원